

당정청, 日 수출 규제 대응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빅데이터법 등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정족력처벌법 등 민생관련 법안,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위당정청협의회의 개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빅데이터 등 정기회의의 처리
공수처법 등 통과 힘 모아
민생안전대책 등에도 만전

또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재정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편익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책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에 5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에 3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앞으로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민생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청은 서민들이 장보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성수품수급·가격안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안정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에 대한 합인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추석연휴기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역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산재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 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뉴스

국외 통신판매업자 의무 이반시 규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 보호

김광수 의원 '국외 온라인여행사 문지마 환불거부 규제법' 발의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숙박·항공서비스 등의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을 거부당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에게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외 온라인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국외 온라인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외 온라인여행사 문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멸실·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해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충청시 교육위와 교육교류 활성화 협력

도의회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익산4)은 27일 중국 충칭시 교육위원회와 만나 양 지역 간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췄다.



이날 최 위원장을 비롯한 충칭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류 행사장에서 양 지역 유학생 유치와 주제로 상호우호 증대에 합의했다. 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슈아이순 충칭시 교육위원회 순시원(부교육감)과 만나 대학교류와 유학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충칭시 소재 우전대에서 '전라북도 유학센터' 현판식을 거행함에 따라 앞으로 센터 운영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학력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현실을 감안, 지난 5월 충칭시 교육위원회의 전북 방문시 도 유학센터 개설을 충칭시 측에 제안했고, 양국간의 교육교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해 왔다.

이를 계기로 최근 도와 충칭시의 교육교류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올해 5월 충칭시와 10개 대학이 전북을 방문, 유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김진성 기자

정책 개발, 당원들이 직접 참여

민주 전북도당, '정책페스티벌' 지역위에서 제안된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페스티벌'을 27일 개최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상향식 정책개발을 위한 경연대회로 당원이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우수한 정책을 선정,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는 당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행사다.

이를 위해 전북도당은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발표됐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정책페스티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20년 수권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페스티벌'을 27일 개최했다.

당으로, 100년을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있었다. 박희승 위원장은 "성숙된 정책제안 방식의 원탁토론회를 통해 직접 시민이 제안·선정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동감 있는 정책 만들기는 곧, 민주당의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뜻이 담긴 정책을 발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 임순남지역위, 정책페스티벌 가져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승)는 27일 오후 7시 남원그린에식장에서 '더불어 2019 포용적 성장과 평화경제를 위한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페스티벌은 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직접 참여 정책제안 프로그램으로, 박희승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 130여 명이 참

석했으며, 민주당에 바라는 마음을 중언비행기에 담아 날리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날 6가지 주제에 사전 신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9개 조로 조별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도·농 균형발전 방안, 문화유산 보존방안, 민주당의 발전방안 등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도모하며 마무리 되

김관영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26일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와 부정재발급 방지책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분할하는 경우 재발급이 안 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발행된 헌혈증서 약 2,800만 매 중 회수된 것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가 안 된 약 2,400만 장의 헌혈증서 중 상당수가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발급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증서는 헌혈 시 받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유사 시환자가 수혈 후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비용을 혈액관리본부가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헌혈증서=수혈권'으로 헌혈증서의 금전적 가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개정안에는 헌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된 헌혈증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 재발급과 이중 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2019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2019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육성축제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9. 9.6 (금) ▶ 9.8 (일) 전북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

9.6 (금) 20시 30분 개막식	9.8 (일) 19시 30분 폐막식	9.6 (금) 14시 10시 개막식
노라조	박상철, 금잔디	장수축제 및 장수군 역사문화 탐방 BJ만나
코요테	박혜신, 설하운	9.7 (토) 16시 장수 거리노래방
레이디티, 임영웅	김병룡, 조연비	9.7 (토) 13시 장수 농특산물 홍보
	김덕건, 노라	9.8 (일) 15시-17시 한우행사관광가요제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